

광주에 'K-POP 전용공연장' 추진

문화전당 연계 한류메카 육성...광주시 2일 세미나

광주시가 한류문화의 글로벌 브랜드인 K-POP(K팝) 브랜드 선점을 위해 전용공연장 건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2일 광주발전연구원과 함께 시청에서 'K-POP 전용공연장 광주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틀 시일 내에 아래나형 K-POP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14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K-POP공연장 광주 건립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익대 교정민 교수가 'K-POP 전용공연장 지

방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광주발전연구원 문창현 박사가 '광주 건립의 주요 이슈와 추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현 음악평론가, 김항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화 CJ E&M 콘서트사업부장,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장 등이 나서 K-POP 전용공연장의 지방 건립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 건립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광주 MBC PD, 이승근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한류문화의 랜드마크이자 한류관광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할 K-POP 전용공연장의 광주 건립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 17일 '한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2000여억원을 들여 면적 6만6000㎡에 1만5000석 규모의 대규모 아래나형 K-POP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광부는 K-POP을 통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방문 공연 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런던 The O2 아레나 공연장



상하이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 공연장

▲아래나형 공연장이란=대규모 원형 공연장의 일종.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공연장 중앙에 객석에서 내려다보이는 주무대를 설치, 관람객과 가수가 함께 즐기고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

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등의 조치로 손해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으로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상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해경청장에 이강덕 내정



이강덕(사진)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이 청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대학 교무과장과 서울 남대문

서장, 경북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 청와대 공직기강감찰과 대통령치안비서관을 지냈다.

광주 상수도 요금 9월 6.42% 인상

광주시의 상수도 요금이 오는 9월부터 6.42% 인상된다.

광주시는 29일, 상수도요금 6.42% 소폭인상 계획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수도물 ㎡당 생산원가는 622.14원 공급단가는 522.27원이지만 지난 2007년 이후 요금이 동결되면서 ㎡당 99.87원의 손실이 발생, 지난 2010년도 말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83.95%, 인상요인은 19.12%, 결

합액은 134억원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다만, 19.12%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인상률은 6.42%로 제한하고 결함액 가운데 45억원은 보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인상률과 결함액 보전액은 최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학교 상수도요금도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감사원 "KTX-산천 도입후 사고 급증"

2010년 '고속철도(KTX)-산천'이 도입된 이후 철도사고·장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적' 감사에서 2011년 10월 기준으로 철도사고·장애가 총 130건 발생해 2009년 대비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TX-산천은 고속철도 기술 기반이 미약했던 국내 기술로 단기간에 개발해 상용화하다 보니 운영 초기 고장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년 2월 KTX-산천 20량을 인수하는 등 총 60량을 차례로 인수해 영업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688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는 신규고속차량 제작기간을 해외 사례인 60개월의 60%에 불과한 36개월로 구매계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압장치 등 5개 동력계통 장치를 점검한 결과, 차량제작사의 경험 부족과 충분한 기술검토 미흡에 따른 결함·장애요인 3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세계박람회 D-12

"역대 엑스포들 지역에 도움 안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후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여수세계박람회 흥행을 넘어 진정한 성공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람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수박람회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5년 일본 아이치만국박람회, 2008년 스페인 사라

고사 국제박람회,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행사 전후 지역 발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엑스포는 지역 인프라 확충에는 도움이 됐으나 지역 경제 규모의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여수엑스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선 지역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람회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과 인프라를 행사 후 지역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사의 주제와 지역의 비전 이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행사 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제 행사의 경제효과를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와 긴밀히 연결된 점을 고려해 지역 내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에 대외 홍보에 더 투자하고 여수와 남해안 지역을 국제 관광지로 성장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지하체관에 설치된 광주시 전시관. 입구는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무지개 다리를 형상화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글로벌 광주 위상 알릴 '광주시 전시관' 준공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될 '광주시 전시관'이 29일 준공됐다.

광주시 전시관은 국·내외에서 1100만 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람회장에서 광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시관 입구는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무지개 다리를 형상화했고, 천정은 광주시가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폴리 공모전 작품인 '열린장벽'을 표현했다.

전체 전시관은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민주·인권·평화존'에는 과거의 5·18민주화운동과 현재의 5·18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미래의 UN인권도시 지정 추진 사실 등을 전시함으로써 5·18이 과거와 현재의 역사인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도시 구축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광주의 정신임을 표현했다.

'문화존'에서는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세계미술의 흐름을 읽는 예술단지관인 광주비엔날레, 세계 최초 작품인 '열린장벽'을 표현했다.

'문화존'에서는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세계미술의 흐름을 읽는 예술단지관인 광주비엔날레, 세계 최초 작품인 '열린장벽'을 표현했다.

날레 그리고 세계 100대 건축가의 작품을 옛 광주 도심에 설치하고 있는 광주폴리 사업 등이 소개된다.

'녹색행복도시 존'은 2011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 대한 성과와 미래방향을 제시했고, 무등산의 주상절리와 아름다운 사계를 이이 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소개했다. '첨단과학 존'에서는 광주R&D특구 지정육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광산업 육성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광주에서 생산된 최첨단 LED를 이용한 빛트리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철·한·독·일·인·의·장·인·정·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봄맞이 부동산 무료특강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 최근 부동산시장전망, 부동산경매, 디지털투자성공전략 -

강사 :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박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총선이후에 부동산대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 전남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강사
- 전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방송국 강의

강사 : 박관식 원부동산연구소장
"혼란기시대 부동산시장 예측과 소액으로 성공투자전략"
- MBC-TV 경제교양강좌, YTN TV교정출연, 한국전력 등 기업체 출강

일시 (선착순 전화접수 100명마감)
2012년 4월30일 오후2시30분

특전
- 강의자료 무료제공
- 참가자 다와옥션 경매이용권 3만원 증정
- "공인중개사 49일 합격작전" (3만5천원)추첨 증정

현대백화점
062)510-8151~2
H.P 017-613-1808